



아시아-미주항로 물동량 증가세 지속될 듯

지난해 아시아의 대미 수출물량 14% 증가

올해 아시아-미주항로의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이 작년과 같이 유례없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loyds List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각한 수준을 보였던 미국 서부항만의 화물적체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사와 항만 오퍼레이터, 수입업자들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극심한 북미서안 항만적체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선사들은 서부항만에 기항하지 않는 방향의 서비스 운항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항만적체를 겪고 있는 항만 오퍼레이터들은 일시적으로 인력보강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시급히 적체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Drewry Shipping Consultants는 지난해 아시아-미주항로의 물동량 증가율이 14.3%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매우 높은 수준인 12%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물동량이 예상되는 한, 아무리 항만 오퍼레이터들과 인터모달 및 철도수송 담당자들이 이에 대비한 철저한 전략을 수립한다 해도,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초대형선의 대거 발주를 포함해 신조선 인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시아-미주항로 취항선사들의 선박수급은 항만적체의 영향으로 타이트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은 현 상황에 대해 북미 인터모달 수준의 열악함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의 상황호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화주와 선사들과의 S/C 계약

이 갱신 또는 체결되는 5월을 한달남짓 앞두고 화주들은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다.

앞으로 4월 4주동안 화주와 선사, 항만 오퍼레이터 및 인터모달 담당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 1월 한달간 아시아지역에서 미주지역으로 수출된 컨테이너화물은 100만6,000TEU로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했으며, 2월중의 물동량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SA 항만 적체 컨테이너 수거 촉구 향후 storage charge 부과 경고

태평양 항로 안정화 협정(TSA)은 4월 18일 화주들에게 현재 항만에 적체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시급히 수거하지 않으면 매우 높은 storage charge를 부과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TSA측의 이러한 경고는 오는 5월 1일 시작되는 2005-2006 시즌 S/C 체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 및 철도 측은 현재 쏟아지고 있는 화물 적시 처리하여 수요 증가에 따른 이익을 착오없이 수행하려 노력 중이다. BNSF(Burlington Northern Santa Fe)는 5월 1일 부로 \$100-150/일의 storage charge 부과를 공지했으며 Union Pacific Railroad도 현재 \$50/일의 storage charge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CSX는 11일 이상 적체된 화물에 대해 \$200/일을 부과할 계획이다.